함평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첫 농사 시작

제2기 입교생 10세대 14명…단호박·고추 등 재배
영농 기초 교육 비롯 모종관리·파종 실습 등 교육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제2기 입교생들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함평군은 "지난 8일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제2기 입교생 14명이 단호박, 고추 재배로 올해 첫 농사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교생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영농기초 교육을 비롯한 모종관리, 파종 실습 등 영농기술과 관련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배워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문학 특강, 농업인 생활법률,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초보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체류형 지원센터 내 시설하우스, 실습농장 등을 활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입교생 대표 오상훈씨는 "처음 해보는 농사라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전문 강사 분들의 지도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학교면 죽정리 일원 1만5385㎡ 부지에 숙박시설·실습농장·시설하우스·개인텃밭 등을 갖춘 체류형 지원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읍 문예·체육행사 추진 운영위원회 개최

영암읍 문예·체육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조문식)는 지난 8일 영암읍사무소에서 2022년도 영암읍 문체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 결산 보고와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다음 달 1일, 개최 예정이던 '제17회 영암읍민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 '를 하반기로 잠정 연기하였다.

조문식 위원장은"코로나로 인해 영암읍민의 날 행사를 연기하게 돼 아쉬움이 크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인 만큼, 모두가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문예·체육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 유달산 봄축제, 호응·방역 속에서 마무리

메타버스·라이브커머스 등 참여형 온라인 프로그램 인기… 사전예약제 방식

유달산 봄축제가 방역 안전과 시민 참여 속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올해 봄축제는 지난 9~10일 '봄이 와서 봄을 즐겨봄'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달산 일원에서 운영된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출·입구 관리를 통해 행사장내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지역축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안전하게 운영됐다.

올해 축제는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 유달산 관광자원을 SNS로 인증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체험, 유튜브 라이브 송출을 통한 온라인 공연,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로 무대에 설 기회가 좁아진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온라인 공연은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한 가운데 조회수 1만2천회를 기록했으며, 축제홈페이지 및 SNS 등에는 4만여명이 방문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유력 포털사이트에서 동시간대 접속자수 상위권에 랭크돼 홍보 효과도 크게 거뒀다.

특히, 사전예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진행된 온오프라인 연계체험인 '봄을 즐겨봄 미션챌린지 5종'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의 '맡아봄', '만들어봄', 조각공원에서 '찾아봄',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의 '찍어봄', 유달예술타운 하늘정원에서 펼쳐진 꽃다발 '던져봄' 등 5가지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달산 주변의 관광자원을 알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방문객 덕분에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코로나 걱정 없이 유달산에서 꽃길을 걸으며 목포의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고품질 감 생산 농가 현장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7일, 영광읍, 군서면, 묘량면 일대 감 연합회 소속 재배농가 과수원에서 고품질 감 생산을 위한 전문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나무의 생육·생리 특성, 전반적인 재배 환경과 대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여름철 고온기 감 과원 관리, 과원 적기 시비 및 토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 재배의 어려운 점과 관습적인 재배방식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 감 연합회 소속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영기 마이스터는 감의 수형 유지와 수세 안정화를 위한 유목기 유인작업과 저수고 재배를 통한 고품질 감 생산 방법을 강조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임자도 어제와 오늘' 사진전

오는 30일까지 조희룡미술관서…성치풍 동암 미술관장 작품 36점 전시

신안군은 '임자도 어제와 오늘' 사진 전시회를 4월 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조희룡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임자면장을 지냈던 성치풍 동암 미술관장의 작품 36점이 전시되며, 예술성보다 기록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일제강점기 1936년 일본 가나가와대학 상민문화연구소 민속학자 일행의 서남해안 기행 사진 기록물을 고해상 디지털이미지로 복원하여 임자도의 어제를 말한다.

또한 임자대교 연륙 이전 임자도 주민들의 삶과 풍광을 담은 성치풍 관장의 작품과 1990년대를 아우르는 주민자치위원 주관으로 수집된 사진 작품은 임자도의 오늘을 담고 있다.

성치풍 동암 미술관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50세 이상 세대에는 과거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과 젊은 세대에는 부모 세대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뜻을 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튤립꽃을 보기 위해 임자도를 방문하는 상춘객들이 섬의 변천사와 섬사람들의 삶이 담긴 전시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튤립 개화 시기에 맞춰 1,300만송이 튤립도 감상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오룡고 신설 건의 36179명 서명부 전달

무안군이 지난 7일 오룡지역 고등학교 신설 적극 추진을 건의하는 무안군민 36,179명의 서명부를 전라남도 교육청을 방문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열악한 지역 내 교육여건 개선 건의를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오룡지역 고등학교 신설 적극 추진을 건의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36,179명의 군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무안군은 "오룡고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